

## 흰쥐에서의 골도분촌에 의한 상응혈위

高炯均\*

---

### ABSTRACT

#### Transpositional acupoints of the rat

Hyung-Kyun, Koh\*

\*Dep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Modern acupuncture research often utilizes the methodology of animal experiment where hypothesized animal acupoints(AA) are stimulated and the results observed. There hasn't been any consensus on the AA locations yet, but it is integral for the locations to be defined in detail before any experimental stimulation on the AA are instituted.

The review of 170 original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from 1984 to 1998 which utilized animal experiment methodology revealed that AA are located primarily by the method of transposition from human acupoints. Only a few of those AA were defined in detail. BL-23, ST-36, BL-18, CV-12, LR-3, BL-20, SP-6 were among most frequently used AA.

Transpositional 121 acupoint system of rat are proposed, which includes 3 points of LU meridian, 5 of LI, 10 of ST, 9 of SP, 4 of HT, 4 of SI, 26 of BL, 2 of KI, 4 of PC, 4 of TE, 11 of GB, 7 of LR, 13 of CV and 19 of GV.

---

**Key words:** animal acupoint, transpositional acupoint, rat, acupuncture research.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 1. 서론

침구학의 연구에 현대과학적 연구가 도입되면서 동물실험은 그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연구에 이용되는 동물은 생쥐나 흰쥐, 토끼 등에서 말, 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동물의 체표에 혈위를 정할 때는 말, 소 등 전통적으로 수의침구학에서의 치료경험이나 경험적 혈위들이 알려져 있는 경우는 전통적 수의침구학 혈위를 이용하거나 혹은 낮은 피부저항을 보이는 지점, 혹은 인체의 경락경혈에 상응하는 부위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흰쥐 등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동물로서 전통 수의침구학의 치료대상이 아니었던 경우는 거의 인체의 혈위와 상응하는 부위를 위주로 취하여 그 부위에서 낮은 피부저항을 보이는 지점을 택해 실험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동물혈위의 定位方法은 크게 3가지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전통수의학에서 기원한 것으로, 오랜 시간에 걸친 경험을 통해 발견된 혈위(전통혈위)들이 있는데, 전통수의학 문헌에 등장하는 이런 혈위들은 주로 소나 말 등 큰 가축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는 근래 들어 동물실험연구상의 필요에서 사람의 주요 혈위를 동물의 해부학적 상응위치에 취혈하는 방법에서 기원한 혈위(상응혈위, transpositional acupoints)가 있다. 셋째는 신경이 체표로 분지해 나오는 지점이나 피부상에 전기저항이 적은 지점 등 많은 경혈에서 관찰되는 특징이라고 알려진 여러 조직학적, 생리학적인 특성을 보이는 지점을 동물의 체표에서 찾아 경혈로 간주하는 방법이 있다.<sup>1)</sup> 근래에도 상응혈위나<sup>2)</sup> 체표의 전기적·생리학적 특징에 따른 혈위에<sup>3)</sup>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피

부 저저항점을 비롯한 여하한 조직학적 특징도 아직 혈위의 필수적인 특징으로서 완전히 입증되지는 못했고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발표되고 있어서 일치된 혈위체계가 마련되지는 못한 상태이며, 실제 수의침구학의 임상에서 상응혈위나 전통혈위 모두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sup>4)</sup> 동물혈위의 위치에 대해 일치된 견해가 나오지 않는 한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

침구학 연구에 있어서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실험에 자주 쓰이는 혈위들의 위치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험의 재현성이나 객관성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동물과 사람의 해부학적 차이 때문에 간단히 '상응하는 위치'라는 표현으로 그 위치를 정확히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에 저자는 대한침구학회지를 통해 실험에 자주 쓰인 혈위들은 무엇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위치가 결정되었는지를 검토해 보고, 향후 흰쥐를 통한 실험에서의 일치된 취혈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응혈위 체계와 혈위도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침구학회지에 나타난 실험동물의 혈위선택

실험동물에서 혈위를 어떤 방법으로 취혈해 왔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침구학회지 1권(1984년)에서 15권 2호(1998년)까지 실험동물의 체표에서 혈위를 선택해 진행된 논문을 검토해 보았다. 阿是穴을 사용한 경우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검토대상 논문은 총 170편이었고, 사용한 실험동물은 흰쥐 122편, 생쥐 29편, 토끼 14편,

1. 華興邦(1987), 論動物的穴位, 中醫雜誌 1987년 4기, pp305-306  
 2. 상응혈위 경락체계의 대표적인 예로 Hwang YC(1992), Acupuncture atlas, Probl Vet Med 4(1), pp16-33을 들 수 있다.  
 3. Yu C, Zhang K, Lu G, Xu J, Xie H, Lui Z, Wang Y, Zhu J(1994), Characteristics of acupuncture meridians and acupoints in

animals, Rev Sci Tech 13(3), pp927-33

4. Panzer RB(1993), A comparison of the traditional Chinese versus transpositional zangfu organ association acupoint locations in the horse, Am J Chin Med 21(2), pp119-31

고양이 2편, 진돗개 2편, 기니피 1편 등이었다.

총 170편의 논문 중 각 혈위가 사용된 빈도는 다음과 같다. 41회 腎俞, 38회 足三里, 25회 肝俞, 20회 中脘, 12회 太衝, 11회 脾俞, 9회 三陰交, 8회 胃俞, 心俞, 百會, 7회 懸鍾, 關元, 膈俞, 6회 命門, 期門, 5회 合谷, 4회 天樞, 志室, 委中, 三焦俞, 3회 血海, 肺俞, 陽陵泉, 水分, 2회 行間, 陰陵泉, 蠡溝, 十宣, 神門, 犢鼻, 大椎, 內關, 氣穴, 氣海, 光明, 崑崙, 1회 環跳, 風池, 八風, 太淵, 太白, 太谿, 築賓, 臍中, 章門, 人迎, 湧泉, 梁丘, 神道, 手足十二井穴, 水道, 少衝, 小腸俞, 飛揚, 膀胱俞, 大腸俞, 大陵, 大都, 氣端, 厥陰俞, 丘墟, 關元俞, 公孫, 曲泉, 曲池, 肩井, 巨闕, 降壓溝, 間使 등이다.

각 동물별 혈위 빈도는 다음과 같다. 흰쥐에 있어서는 31회 腎俞, 22회 肝俞, 20회 足三里, 11회 中脘, 10회 太衝, 9회 三陰交, 8회 脾俞, 7회 懸鍾, 6회 胃俞, 心俞, 關元, 期門, 5회 命門, 3회 委中, 百會, 膈俞, 天樞, 肺俞, 合谷, 2회 行間, 陰陵泉, 十宣, 氣海, 光明, 崑崙, 志室, 陽陵泉, 1회 間使, 降壓溝, 肩井, 曲泉, 關元俞, 丘墟, 厥陰俞, 氣端, 內關, 大都, 大陵, 大腸俞, 大椎, 犢鼻, 飛揚, 三焦俞, 小腸俞, 少衝, 水分, 手足十二井穴, 神道, 神門, 梁丘, 蠡溝, 湧泉, 人迎, 章門, 臍中, 築賓, 太谿, 太白, 太淵, 八風, 風池, 血海, 環跳 등이다. 생쥐에 있어서는 16회 足三里, 8회 中脘, 4회 腎俞, 百會, 2회 太衝, 合谷, 三焦俞, 1회 巨闕, 曲池, 公孫, 氣穴, 內關, 脾俞, 陽陵泉, 蠡溝, 委中, 天樞, 血海 등이다. 토끼에 있어서는 5회 腎俞, 2회 膈俞, 脾俞, 水分, 心俞, 胃俞, 1회 肝俞, 關元, 氣穴, 大椎, 犢鼻, 命門, 膀胱俞, 百會, 三焦俞, 水道, 足三里, 中脘, 志室, 血海 등이다. 고양이의 경우는 神道, 足三里 각 1회였고, 진돗개의 경우는 肝俞와 膈俞 각 2회씩이었으며, 기니피는 腎俞가 1회 사용되었다.

경혈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은 모두 기본적으로 骨度分寸에 의해 해부학적으로 상응하는 부위에 취혈한다고 하였다. 흰쥐 사용 논문 중 42편, 생쥐 사용 논문 중 3편, 토끼 사용 논문 중 7편, 고양이 사용 논문 중 1편 등 모두 53편에서는 상응하는 위치와 더불어 경혈탐지기상의 반응점이 일

치하는 점에서 위치를 확정한다고 하였다. 사용한 경혈탐지기는 akumed L.T.G. laser beam acupuncture system(채 등<sup>5)</sup> 외), laser detector(akuplus MFL, MBB)(이 등<sup>6)</sup> 외), 石川式經穴探測器(홍 등<sup>7)</sup>), D-J3형 경혈탐측기(송 등<sup>8)</sup> 외), CS-202 耳電探測器(문 등<sup>9)</sup> 외) 등이었다. '상응하는 부위'라는 언급 외에 보다 구체적인 취혈부위 언급은 十宣(前足趾 末端 爪甲下)<sup>10)</sup>, 十宣·氣端(前·後足趾端 爪甲下)<sup>11)</sup>, 足三里(경골조면과 비골두를 기준으로 하여 취혈)<sup>12)</sup>, 膈俞(7-8흉추 사이 양측 1cm)<sup>13)</sup>, 犢鼻(관절부위를 적당한 범위 내에서)<sup>14)</sup>, 膈俞(7-8흉추 사이에서 양측으로 성견은 2cm, 유견은 1.5cm), 肝俞(9-10흉추 사이에서 양측으로 성견은 2cm,

5. 채우석·최용태(1984), 침, 구 및 Laser 광선침자극이 백서의 세노관장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1권, pp1-18
6. 이준무·김경식(1987), 애구가 실험적 고혈압 백서의 혈압, 혈장 Renin 활성도 및 Catcholamine 농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4권, pp17-38
7. 홍영표·고형균·김창환, 금사주입이 백서의 Testosterone 및 Estrogen 분비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5권, pp15-38
8. 송언석·안병철·박동석(1990), 가미소품활혈탕수침이 Adjuvant관절염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7권, pp19-38
9. 문진영·임종국(1995), 간수 기문혈의 애구 및 당귀미수침이 백서의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12권 2호, pp119-134
10. 홍영표·최용태(1984), 심선혈의 유침 및 사혈이 백서의 체온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1권, pp89-96
11. 김정유·김경식·임종국(1984), 심선혈침자가 자연발증고혈압 백서의 혈압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1권, pp97-104
12. 신권성·변재영·안수기·황우준(1998), 족삼리 침자가 동통억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15권 2호, pp287-300
13. 이영훈·박희수(1996), 단삼사물탕의 격수수침이 빈혈을 유발시킨 가토의 혈액상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13권 1호, pp45-54
14. 박철원·김갑성(1998), Lipopolysaccharide유발 토끼 관절염에서 황백약침이 관절염증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15권 1호, pp229-249

유견은 1.5cm)<sup>15)</sup>, 膈俞(7-8흉추 사이 양측 2cm), 肝俞(9-10흉추 사이 양측 2cm)<sup>16)</sup> 등이 있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대개 실험동물 체표상의 취혈에 있어서 해당 부위를 자세히 언급하기 보다는 골도분촌에 의해 상응하는 부위를 취한다고 했다. 그리고 경혈탐지기를 이용해 피부의 저항점을 탐지하는 경우에도 피부저항이 적은 지점이 꼭 혈위와 일치하는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경혈탐지기를 이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응하는 부위를 먼저 찾은 후 그 국소부위에서 탐지기를 이용해 확인하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취혈부위가 명확하게 제한되지 않는 점이 있다. 사람과 실험동물은 진화단계에 따라 체내 각 조직기관에 여러 가지 해부학적 차이를 보인다. 특히 腰背部에 위치한 膀胱經의 혈위들은 내부장기와의 연관성 때문에 자주 실험에 응용되고 있지만, 추골의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수혈의 위치를 동물의 어느 위치에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토끼의 경우 요추 7개, 천추 4~5개, 미추 15~18개이며, 흰쥐의 경우 흉추 13개, 요추 6개, 천추 4개, 미추 28개이므로 肝俞穴, 胃俞穴, 腎俞穴처럼 하부흉추부나 요추부에 위치한 혈위의 경우 동물의 체표에 상응위치를 취할 때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 저자들 사이에서도 '상응하는 부위의 腎俞穴이나 肝俞穴'의 구체적인 위치는 각기 다르게 이해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사람은 마지막 2개 늑골이 부늑골(floating rib)이지만 흰쥐는 3개 늑골이 부늑골이라는 점, 그리고 견관절부, 고관절부, 요골, 척골의 상대적 위치 차이 등 여러 가지 해부학적 차이가 상존한다. 동물들의 경우 중립위치에서 요골과 척골의 위치가 사람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척골 부위를 따라 분포하는 心經,

小腸經이 앞발의 내측면이 아니라 외측면에 위치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된다. 그리고 작은 실험동물의 경우는 사람의 골도분촌 비율을 그대로 적용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생쥐나 흰쥐에서 光明穴, 陽輔穴, 懸鐘穴 등을 구분해 취혈하는 것은 용이치 않고, 足三里穴을 슬관절에서 과관절까지의 연장선상에 3/16의 비율로 취혈하는 것도 쉽지 않다.

## 2.2. 흰쥐의 상응혈위

앞으로도 동물실험은 침구학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부분으로서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험에 사용된 혈위의 구체적인 위치를 밝혀 실험논문의 내용이 보다 명확해지고 자료의 축적이나 실험결과에 대한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저자는 흰쥐의 해부학적 구조를 참고하여<sup>17)</sup> 실험에 자주 사용된 혈위나 12경경의 혈위, 임맥·독맥의 혈위 중 주요 혈위들에 대한 흰쥐에서의 상응혈위 체계를 골도분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려 한다. 각 경맥의 약자는 WHO 안에 따랐다. 간, 담, 비, 위는 복강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肝俞, 膽俞, 脾俞, 胃俞 등은 마지막 4개의 흉추 극돌기 측하방에 위치시켰고 골도분촌의 비율을 일부 간략화하였으며, 전통적으로 동물의 百會穴은 동물이 네발로 자세를 유지할 때 가장 높은 위치로 오는 부위 즉 마지막 요추와 천추 사이에 취해 온 것을 감안하여 이를 腰百會, GV\_20L로 첨가시켰다.

### 2.2.1. 폐경(LU)

LU\_5. 尺澤: 주관절 관절와, 상완이두근건(요골의 결절과 원회내근을 싸는 근막에 종지)의 외측 함요처.

LU\_9. 太淵: 완관절 내측면, 요측수근신근건(제2, 제3중수골에 종지)의 내측 함요처.

LU\_11. 少商: 앞발 제1족지단의 내측.

15. 박영환·박희수(1997), 귀용탕약침이 진돗개 혈액상의 pO<sub>2</sub>, pCO<sub>2</sub>, pH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14권 1호, pp397-408

16. 방재성(1997), 귀용탕약침이 진돗개 혈액상의 전해질이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14권 2호, pp277-296

17. 김종섭, 김창환(1996), 척추동물해부학, 서울, 형설출판사

2.2.2. 대장경(LI)

- LI\_1. 商陽: 앞발 제2족지단의 내측.
- LI\_4. 合谷: 앞발 제1, 제2 중수골 사이의 배측 골간근에 위치.
- LI\_11. 曲池: 주관절 횡문 외측단, 요측수근신근(상완골 외상과에서 기시)의 내측에 위치.
- LI\_15. 肩髃: 견갑골 肩峰 전하방 함요처. 상완골 대결절과의 사이, 삼각근 전방에 위치.
- LI\_20. 迎香: 鼻翼의 외측.

2.2.3. 위경(ST)

- ST\_1. 承泣: 안구 중앙 직하에 안와 하연과의 사이에 위치.
- ST\_2. 四白: 안와하공에 위치. 承泣穴 전하방.
- ST\_6. 頰車: 하악각 전상방 근복에 위치.
- ST\_7. 下關: 관골궁 하방, 하악 과상돌기 전방의 함요처.
- ST\_25. 天樞: 배꼽 양측으로, 유두를 서로 잇는 선과 만나는 점까지의 중점에 취혈.
- ST\_35. 犢鼻: 슬관절면에, 슬개골에서 경골결절에 이어지는 슬개인대 외측에 취혈.
- ST\_36. 足三里: 경골 전외측에, 犢鼻穴에서 과관절 전면을 이은 선을 5등분하여 근위 1/5과 2/5 부분의 경계점에 취혈.
- ST\_40. 豐隆: 犢鼻穴에서 경비골(흰귀는 경골과 비골이 원위부에서 융합되어 있다) 외과를 이은 선의 중점.
- ST\_41. 解谿: 과관절 전면에, 전경골근건과 장지신근간 사이 함요처.
- ST\_45. 厲兌: 뒷발 제2족지단의 외측

2.2.4. 비경(SP)

- SP\_1. 隱白: 뒷발 제1족지단의 내측
- SP\_2. 大都: 뒷발 내측면, 제1중족·족지관절의 전방에 취혈.
- SP\_3. 太白: 뒷발 내측면, 제1중족·족지관절의 후방에 취혈.
- SP\_4. 公孫: 뒷발 내측면, 제1중족골 기저부 전방

에 취혈.

- SP\_5. 商丘: 경비골 내과 하방, 전경골근간 내측의 함요처.
- SP\_6. 三陰交: 경비골 내과와 陰陵泉穴을 이은 선을 5등분하여 원위 4/5와 5/5 부분의 경계점. 경골 후방의 함요처.
- SP\_9. 陰陵泉: 경골내측과 하방, 경골 후방에 비복근과 사이의 함요처.
- SP\_10. 血海: 대퇴부 내측면에, 대퇴골 내측과의 상방, 대퇴골 전방 함요처.
- SP\_21. 大包: 제6늑간을 따라 액와정중선상에 취혈.

2.2.5. 심경(HT)

- HT\_1. 極泉: 액와부 정중 함요처.
- HT\_3. 少海: 상완골 내상과와 척골주두 사이. 상완삼두근 전방 함요처.
- HT\_7. 神門: 완관절면 후방 외측에, 척측수근굴근과 천지굴근 사이의 함요처
- HT\_9. 少衝: 앞발 제5족지단의 내측.

2.2.6. 소장경(SI)

- SI\_1. 少澤: 앞발 제5족지단의 외측.
- SI\_5. 陽谷: 완관절 외측면에, 척골과 수근골 사이의 함요처.
- SI\_8. 小海: 상완골 외상과와 척골주두 사이 함요처.
- SI\_19. 聽宮: 耳珠 전방

2.2.7. 방광경(BL)

- BL\_1. 睛明: 내측 안각의 조금 내상방.
- BL\_10. 天柱: 환추외측과 후연의 함요처.
- BL\_11. 大杼: 제1흉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0.5cm정도의 함요처.
- BL\_13. 肺俞: 제3늑간, 제3흉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0.5cm정도의 함요처
- BL\_14. 厥陰俞: 제4늑간, 제4흉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0.5cm정도의 함요처
- BL\_15. 心俞: 제5늑간, 제5흉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0.5cm정도의 함요처

- BL\_16. 督俞: 제6늑간, 제6흉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0.5cm정도의 함요처
- BL\_17. 膈俞: 제7늑간, 제7흉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0.5cm정도의 함요처
- BL\_18. 肝俞: 제10늑간, 제10흉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0.5cm정도의 함요처
- BL\_19. 膽俞: 제11늑간, 제11흉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0.5cm정도의 함요처
- BL\_20. 脾俞: 제12늑간, 제12흉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0.5cm정도의 함요처
- BL\_21. 胃俞: 제13흉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0.5cm정도의 함요처.
- BL\_22. 三焦俞: 제1요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0.5cm정도의 함요처.
- BL\_23. 腎俞: 제2요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0.5cm정도의 함요처.
- BL\_24. 氣海俞: 제3요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0.5cm정도의 함요처.
- BL\_25. 大腸俞: 제4요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0.5cm정도의 함요처.
- BL\_26. 關元俞: 제5요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0.5cm정도의 함요처.
- BL\_27. 小腸俞: 제6요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0.5cm정도의 함요처.
- BL\_28. 膀胱俞: BL-26에서 BL-27만큼의 후방 연장선상에 배정중선에서 측방 0.5cm 정도 위치에 취혈.
- BL\_35. 會陽: 꼬리 기저부 양측에 취혈.
- BL\_39. 委陽: 슬와부의 외측단 함요처, 대퇴이두근건의 내측.
- BL\_40. 委中: 슬와부 정중 함요처.
- BL\_52. 志室: 제2요추 극돌기 하연에서 측방 1cm 정도의 함요처.
- BL\_57. 承山: 委中穴과 崑崙穴을 이은 선의 중점.
- BL\_60. 崑崙: 경비골 외과 후방에 종골과 사이의 함요처
- BL\_67. 至陰: 뒷발 제5족지단의 외측

### 2.2.8. 신경(KI)

- KI\_1. 湧泉: 뒷발 족저부 중족골부 중심의 함요처.

- KI\_3. 太谿: 경비골 내과의 후방 함요처.

### 2.2.9. 심포경(PC)

- PC\_3. 曲澤: 주관절 관절와에서 상완이두근건의 내측 함요처.
- PC\_6. 內關: 앞발 내측에 요측수근굴근 후방, 천지골근 전방의 함요처. 曲澤穴과 大陵穴을 이은 선의 원위부 5/6와 6/6부분의 경계점.
- PC\_7. 大陵: 완관절면에 요측수근굴근건의 후방, 수근골의 직상방에 위치.
- PC\_9. 中衝: 앞발 제3족지단의 내측.

### 2.2.10. 삼초경(TE)

- TE\_1. 關衝: 앞발 제4족지단의 외측.
- TE\_4. 陽池: 완관절 배면, 총지신근건 후방 함요처.
- TE\_5. 外關: 전완부를 6등분해서 원위부 5/6와 6/6부분의 경계점, 요골과 척골 사이 총지신근건의 후방에 취혈.
- TE\_10. 天井: 척골주두 상방 함요처.

### 2.2.11. 담경(GB)

- GB\_1. 瞳子膠: 외측 안각 조금 외측에 위치.
- GB\_3. 上關: 관골궁 상연의 함요처. 下關穴(ST\_7)에 대응하는 위치.
- GB\_20. 風池: 흉골유돌근이나 쇄골유돌근의 유양돌기 종지부 내측 함요처, 風府穴(GV\_16)과 같은 높이.
- GB\_21. 肩井: 제7경추와 肩峰을 이은 선의 중점
- GB\_25. 京門: 측복부에 제13늑골단의 후방에 취혈.
- GB\_30. 環跳: 대퇴골 대전자 상방의 함요처.
- GB\_33. 膝陽關: 대퇴골 외측과 상방의 함요처.
- GB\_34. 陽陵泉: 비골골두 전하방에 경골과 사이의 함요처.
- GB\_39. 懸鍾: 슬관절면 외측에서 경비골 외과를 이은 선의 원위 4/5와 5/5부분의 경계점.
- GB\_40. 丘墟: 경비골 외과 전하방 함요처.

GB\_44. 足厥陰: 뒷발 제4족지단의 외측.

2.2.12. 간경(LR)

LR\_1. 大敦: 뒷발 제1족지단의 외측.

LR\_2. 行間: 뒷발 제1, 제2족지 사이의 중족족지 관절 전방에 위치.

LR\_3. 太衝: 뒷발 제1, 제2중족골 근위부 사이의 함요처.

LR\_5. 蠡溝: 슬관절 내측면에서 경비골 내과를 이은 선을 3등분했을 때 원위 2/3와 3/3 부분의 경계점에 취혈.

LR\_8. 曲泉: 슬관절 내측면에, 반막양근과 반건양근이 경골에 종지하기 전에 그 전방 함요처에 취혈.

LR\_13. 章門: 측복부에 제12늑골단의 후방에 취혈.

LR\_14. 期門: 제6늑간에 乳頭를 이은 선과 만나는 점에 취혈.

2.2.13. 임맥(CV)

CV\_1. 膻陰: 함문과 외음부 사이의 정중 함요처.

CV\_3. 中極: 복정중선상에, 배꼽에서 치골결절을 이은 선을 5등분했을 때 배꼽 후방으로 4/5와 5/5부분의 경계점.

CV\_4. 關元: 복정중선상에, 배꼽에서 치골결절을 이은 선을 5등분했을 때 배꼽 후방으로 3/5과 4/5부분의 경계점.

CV\_6. 氣海: 복정중선상에, 배꼽에서 치골결절을 이은 선을 5등분했을 때 배꼽 후방으로 2/5되는 부분의 중점(즉 배꼽에서 치골 방향으로 3/10 되는 곳)

CV\_7. 陰交: 복정중선상에, 배꼽에서 치골결절을 이은 선을 5등분했을 때 배꼽 후방으로 1/5과 2/5부분의 경계점.

CV\_9. 水分: 복정중선상에, 배꼽에서 흉골을 이은 선을 8등분했을 때 배꼽 전방으로 1/8과 2/8부분의 경계점

CV\_10. 下脘: 복정중선상에, 배꼽에서 흉골을 이은 선을 8등분했을 때 배꼽 전방으로 2/8와 3/8부분의 경계점

CV\_11. 建里: 복정중선상에, 배꼽에서 흉골을 이은 선을 8등분했을 때 배꼽 전방으로 3/8과 4/8부분의 경계점

CV\_12. 中脘: 복정중선상에, 배꼽에서 흉골을 이은 선의 중점.

CV\_13. 上脘: 복정중선상에, 배꼽에서 흉골을 이은 선을 8등분했을 때 배꼽 전방으로 5/8와 6/8부분의 경계점

CV\_14. 巨關: 복정중선상에, 배꼽에서 흉골을 이은 선을 8등분했을 때 배꼽 전방으로 6/8과 7/8부분의 경계점

CV\_15. 鳩尾: 복정중선상에, 배꼽에서 흉골을 이은 선을 8등분했을 때 배꼽 전방으로 7/8과 8/8부분의 경계점

CV\_17. 臍中: 복정중선상에 제4늑간 높이에서 취혈.

2.2.14. 독맥(GV)

GV\_1. 長強: 꼬리 기저부와 함문 사이의 함요처.

GV\_2. 腰俞: 배정중선상에 천추와 제1미추 사이의 함요처.

GV\_20L. 腰百會: 배정중선상에 제6요추와 천추 사이의 함요처.

GV\_3. 腰陽關: 배정중선상 제4, 제5요추 극돌기 사이의 함요처.

GV\_4. 命門: 배정중선상 제2, 제3요추 극돌기 사이의 함요처.

GV\_5. 懸樞: 배정중선상 제1, 제2요추 극돌기 사이의 함요처.

GV\_6. 脊中: 배정중선상 제12, 제13흉추 극돌기 사이의 함요처.

GV\_7. 中樞: 배정중선상 제11, 제12흉추 극돌기 사이의 함요처.

GV\_8. 筋縮: 배정중선상 제10, 제11흉추 극돌기 사이의 함요처.

GV\_9. 至陽: 배정중선상 제7, 제8흉추 극돌기 사이의 함요처.

GV\_10. 靈臺: 배정중선상 제6, 제7흉추 극돌기 사이의 함요처.

GV\_11. 神道: 배정중선상 제5, 제6흉추 극돌기 사

이의 함요처.

GV\_12. 身柱: 배정중선상 제3, 제4흉추 극돌기 사이의 함요처.

GV\_13. 陶道: 배정중선상 제1, 제2흉추 극돌기 사이의 함요처.

GV\_14. 大椎: 배정중선상 제7경추와 제1흉추 극돌기 사이의 함요처.

GV\_16. 風府: 배정중선상 환추후두관절 높이에 취혈

GV\_20. 百會: 배정중선상 두정부의 가장 높은 곳에 취혈.

GV\_25. 素膠: 코 배면의 정중선에서 털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경계점.

GV\_26. 水溝: 코 밑 윗입술의 정중선상에 취혈.

### 3. 결 론

1984년에서 1998년까지 대한침구학회지의 논문에 나타난 실험동물에서의 취혈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1) 흰쥐, 생쥐, 토끼, 고양이, 진돗개, 기니피 등에서 (2) 腎俞, 足三里, 肝俞, 中脘, 太衝, 脾俞, 三陰交, 胃俞, 心俞, 百會, 懸鍾, 關元, 膈俞, 命門, 期門, 合谷 등의 혈위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3) 동물 체표에서 혈위의 위치를 정할 때에는 골도분촌에 의한 상응하는 위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었고 1/3 정도에서는 이에 겸하여 해당 부위에서 경혈탐지기를 통한 반응점을 찾아 위치를 확정하는 방법도 쓰였다. 구체적으로 각 혈위의 해부학적 위치를 언급한 경우는 소수였다.

실험동물과 사람의 해부학적 구조에 차이가 있어서 일부 혈위는 동물 체표상에 상응하는 위치를 취하려 할 때 위치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흰쥐에서의 골도분촌에 의한 취혈로서 肺經 3개, 大腸經 5개, 胃經 10개, 脾經 9개, 心經 4개, 小腸經 4개, 膀胱經 26개, 腎經 2개, 心包經 4개, 三焦經 4개, 膽經 11개, 肝經 7개, 任脈 13개, 督脈 19개 등 총 121개 상응혈위를 제안해 보았다.